

경기아트센터-양평문화재단 업무협약

2025년 12월 17일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담당	
사진있음 ■ 쪽수 : 1	사업담당	
	사진자료	

경기아트센터-양평문화재단, 문화예술 교류 확대 위한 업무협약 체결 문화예술 협력으로 경기도 문화 균형발전 나선다

경기아트센터(사장 김상회)가 12월 17일(수) 양평문화재단(이사장 박신선)과 문화예술 교류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경기아트센터 김상회 사장과 양평문화재단 박신선 이사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 기관 공동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및 교류 협력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및 지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업 공동 참여 등이다.

양 기관은 상호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상호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공동 추진과 교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본 협약은 경기도 전반의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완화하고, 도민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기아트센터는 지난 12월 3~4일 개최한 ‘G-ARTS 프리뷰 컨퍼런스’를 통해 경기도 내 16개 문화예술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지역 문화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이중 고양·구리·남양주·의정부·파주·포천 등 6개 경기 북부 지역 기관이 포함되어,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 인프라가 취약한 북부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도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경기아트센터 김상회 사장은 “양 기관의 강점을 결합한 공동사업을 통해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경기도 전역의 문화예술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